

# 윤동주 시의 기호학적 연구

송 효 섭

## 1. 열린 문화적 예술 세계

문학 텍스트가 갖는 ‘문학다움’을 텍스트 그 자체의 맥락에서 밝혀내는 것은 형식주의 시학의 기본 과제이다. 자율성과 폐쇄성에 의해 정의되는 텍스트의 개념은 문학의 유기체론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이때의 문학 텍스트의 구조를 모든 텍스트 외적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켜 논의하는 극단적인 형식론은 이미 그 힘을 잃은 지 오래이다. 프라그 구조주의 학파의 구조의 개념 속에도 통시론 혹은 역사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에는 ‘문학 중심주의’의 그림자가 끼쳐져 있다. 시학이 바탕이 되는 한, 이는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어떠한 텍스트에 대한 시학적 검토는 그 텍스트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문학적 예술 중의 하나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텍스트는 단지 문학적 예술 체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문학적/비문학적’의 구분을 넘어서 그것은 하나의 예술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편의 시 텍스트를 해석할 때,

그 텍스트의 언어는 단지 다른 시 텍스트 혹은 문학 텍스트와 기호학적 연관을 가질 뿐인가? 더구나, 시학적 관심이 아닌 해석학적 관심을 가지고 텍스트를 접할 때, 그것이 갖는 문학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의 언어와의 관련을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기호학의 시각에서 텍스트를 볼 때, ‘문학적’이란 모든 언술의 구심점이 아닌 텍스트 분석자에 의해 텍스트에 부여된 기호학적 의미일 뿐이다.

윤동주의 시 텍스트를 접하고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할 때, 그러한 느낌은 더하다. 윤동주 시의 세계를 하나의 기호계<sup>1)</sup>로 볼 때, 기호계 속에서 움직이는 기호는 무엇인가 다른 맥락에 의해 해석되어 만들어진 기호들이기 때문이다. 퍼스가 말한 해석소 *interpretant*<sup>2)</sup>란 바로 이와 같이 하나의 기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만들어진 기호를 의미한다. 가령 윤동주 시의 기호들을 해석할 때, 나는 이미 윤동주에 대해 알고 있었던 지식, 경험, 태도에서 출발한다. 윤동주에 대해 씌어졌던 내가 읽은 몇몇 논문들도 나의 기호 해석에 관여한다. 윤동주라는 인물에 대해 가졌던 인상, 순결하고 지사적인 깨끗한 이미지도 이러한 해석에 관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윤동주 시를 읽으며 윤동주라는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된 윤동주의 삶에 대한 기록들이 이러한 윤동주 시의 기호계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지 않을 수

1) 기호계 *semiosphere*란 단지 다른 언어들의 총합이 아닌, 언어들의 존재와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호학적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기호계 안에서는 이질적인 다른 언어들이 비대칭의 관계를 이루며, 서로 충돌하고 통합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낸다. Cf. Yuri M. Lotman,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p. 123~30.

2) cf.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ed.), *Th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 2(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 135.

없다. 이러한 모든 문화적 언술들이 서로 충돌하고 통합하면서 윤동주 시의 기호계를 이루어낸다. 1972년 정음사에서 간행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詩)』에는 윤동주의 시뿐만 아니라, 그의 산문, 또 백철, 박두진, 문익환, 장덕순, 윤일주, 정병욱에 의해 씌어진 그에 관한 기록들이 실려 있다. 이 시집을 텍스트로 접한 독자들은 이러한 다른 성격을 지닌 언술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윤동주라는 하나의 문화적 언술 세계가 그의 정신 속에서 만들어 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경험에 대한 기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 요컨대 그는 두 개의 큰 興件 위에서 詩를 썼다. 즉 민족의 受難을 일신에 짊어진 그 순교자적인 정열과 신념, 그리고 다른 하나는 詩人인 것을 運命的이라고까지 느꼈던 그의 타고난 詩人의 靈感이었다. (백철)

2) 그러나 이 尹東柱의 경우처럼 그 作品과 生活과 志操가 완전히 合一體化된 예는 극히 드물다. 그만큼 尹東柱는 崇高한 民族的 抵抗詩人으로서 한 時代의 頂点を 맡아 그 苛熱한 殉節을 통해서 하나의 永遠한 發花를 보였던 것이다. (박두진)

3) 「그의 저항 정신은 불멸의 전형이다」라는 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은 열른 수궁하지 못한다. 그에게 와서는 모든 대립은 해소되었었다. 그의 미소에서 풍기는 따뜻함에 녹지 않을 얼음이 없었다. 그에게는 다들 골육의 형제였다. (문익환)

4) 東柱는 깊은 愛情과 폭넓은 理解로 人間을 肯定하면서도, 自己는 懷疑와 一種의 嫌惡로 自身을 否定하는 괴벽한 휴머니스트이다. (장덕순)

윤동주 혹은 그의 시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언술들은 윤동주의 기호 세계에 대한 해석을 드러내는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기호들은 서로 일치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한다. 위에서만 보더라도, 2)에서는 윤동주를 민족적 저항 시인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3)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단지 대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호 해석은 이러한 대립으로부터 어떠한 방향으로의 해석을 이끌어낸다. 윤동주에 대한 이러한 언술들간에 역동적 기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언술들은 또 윤동주 시 텍스트의 언술과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 기호 활동을 한다. 이러한 언술들을 접한 해석자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는 기호 활동에 참여한다. 윤동주 시의 언술의 해석소로서 윤동주 혹은 윤동주 시 텍스트에 대한 언술이 씌어지고, 이러한 언술에 대한 해석소로서 또 다른 언술이 씌어지는 것이다. 윤동주의 기호 세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언술의 기호들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호 활동을 밝혀내는 것이다.

## 2. 「서시(序詩)」로부터 찾아진 실마리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그에 관한 언술들, 그리고 몇몇 그에 관한 논문들을 읽고, 필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조금 막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 텍스트를 선정하여, 그 기호 체계와 기호 활동의 실상을 밝혀보기로 한다. 「서시」가 그 실마리가 될 듯하다.<sup>3)</sup>

3) 「서시」에 대한 대표적인 기호학적 분석으로는, 이사라, 「윤동주 시의 기호론적 연구」, 『시의 기호론적 연구』(서울: 중앙경제사, 1987), pp. 24~44; 이승훈, 「윤동주의 「서시」 분석」, 이승훈 엮음, 『한국 문학과 구조주의』(서울: 문학과비평사, 1988), pp. 93~110을 들 수 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序詩」 전문

이 시 속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시제)가 찾아진다.

괴로워했다(과거)  
 걸어가야겠다(미래)  
 스치운다(현재)

이에 따라, 이 시를 1~4행, 5~8행, 9행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4행은 과거, 5~8행은 미래, 9행은 현재를 기술한 것이다.<sup>4)</sup>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한다. 지향점은 미래에 있다.

2행에서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

4) 이사라, 앞의 책, p. 27; 이승훈, 앞의 글, 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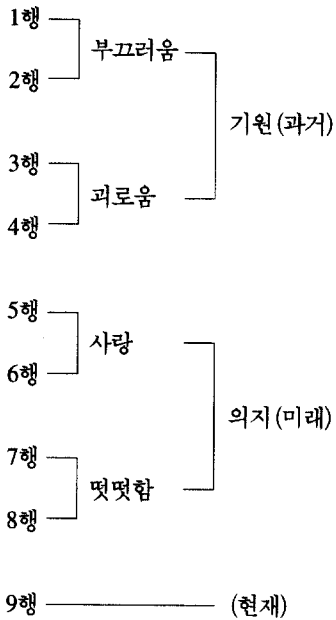
은 지금의 삶이 부끄러운 삶을 고백한 것이다. 부끄러운 삶에 대한 인식은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섬세한 정서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부끄러움’과 ‘괴로움’은 이와 아울러 변별적 징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부끄러움은 자신에 대한 내성에서, 괴로움은 자신의 바깥의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시적 화자는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밖을 내다보면 괴로운 것이다. 이는 극복해야 할 과거이다. 5~8행은 미래의 전망 속에서 이러한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는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괴로워하는 예민한 나약함에서 벗어나 가장 절박한 것까지도 자신의 내면에 수용하는 사랑을 얻고자 한다. ‘사랑’은 ‘괴로움’의 대립항이며, ‘노래’는 사랑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에는 ‘부끄러움’을 극복한 ‘떳떳함’ 혹은 ‘당당함’이 나타나 있다. 삶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곧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지는 앞서 2행에서 나타난 ‘기원’과 대립적 체계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이 시의 의미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도식에서 찾아지는 대립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끄러움 : 뜻뜻함  
 괴로움 : 사랑  
 기원 : 의지

이러한 의미론적 심층 구조의 표면에 존재하는 표층 구조 속에서 이러한 대립들이 단지 대립에 머물지 않고 통합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5~8행의 '해야지'와 '걸어가야겠다'와 같은 의지적 표현들은 텍스트 속에서의 대립이 어떠한 방향으로 통합되는가를 보여준다. 미래 속에서 부끄러움은 뜻뜻함에 의해 괴로움은 사랑에 의해 극복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부끄러움’과 ‘떴떴함’은 시적 화자의 내면에 대한 자성에서 비롯된 정서라면, ‘괴로움’과 ‘사랑’은 외부의 충격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에서 비롯된 정서이다. 이들은 각기 기호학적으로 외향적 정서라는 의미 층위와 내향적 정서라는 의미 층위로 요약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내향적 : 외향적

의 대립을 드러낸 것이다. 시 텍스트에서 이러한 층위는 단지 병렬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기호들 역시 텍스트의 기호계 속에서 충돌과 통합을 이룬다. 텍스트의 맥락에서 이들 기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통합을 이루는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1~8행의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계기적 연결을 통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내향적
외향적
내향적  
 부끄러움 → (괴로움 → 사랑) → 떴떴함

이와 같이 볼 때, 이 시 텍스트는 내향적 의미 지향이 외향적 의미 지향을 포괄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자 하는 떴떴함이 이 시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궁극적 가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텍스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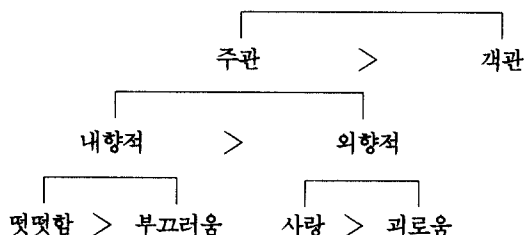
는 앞서 1~8행의 텍스트의 기호와 대립적인 기호를 드러내면서, 이 시 텍스트의 기호에서 또 다른 긴장을 야기시킨다.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다져진 주관적 의지와는 달리, 단지 오늘밤이라는

‘현재’에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뿐이다. 바람이 앞서 3행에서 보듯 시적 화자의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존재라면, 별은 이러한 괴로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희생적 존재이다. 따라서 9행은 외향적 갈등이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기술이다. 이는 1~8행의 주관적이며 내면적인 극복의 대립항으로 놓일 수 있다. 따라서, 1~8행과 9행 사이에는

주관 : 객관

의 대립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시 텍스트에서 객관적 상황의 기술은 주관적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내부를 응시하고 뿔뿔하게 주어진 길을 가려는 의지는 이를 통해 더욱 굳건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주관’의 기호와 ‘객관’의 기호들은 서로 대립하며 역동적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관적인 것을 떠받치는 객관적인 것의 수사학적 역할이 주목된다. 여기서 ‘객관’의 기호는 ‘주관’의 기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자가 후자에 의해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 시 텍스트의 기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 기호 작용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 몇 개의 의미 회로를 통한 역동적 기호 활동

이러한 「서시」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추출된 의미 층위들은 그 밖의 다른 시 텍스트를 살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 된다. 물론 다른 시 텍스트들 속에서 이와 똑같은 구조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추출된 「서시」의 기호학적 구조에는 층위들간의 계층 관계와 대립항들 사이의 통합 관계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시 텍스트에 따라 이러한 관계들은 역전될 수도 있다. 운동주의 기호계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기호 활동은 무한한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앞서 추출된 도식에서 볼 때, '내향적'과 '외향적'은 대립 체계를 이루지만, 이들은 또한 각기 다른 의미 회로를 거느리는 의미 층위를 이룬다. 내향적 의미 층위에서는 '땃땃함'과 '부끄러움'의 기호들이, 외향적 의미 층위에서는 '사랑'과 '괴로움'의 기호들이 각기 상호 작용을 하며 의미의 회로를 이룬다. 이들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이 운동주 시의 기호계에서 드러난다. 물론 대립적 방향의 기호 작용이 같은 기호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호들 사이의 긴장과 대립, 그리고 통합이 곧 기호가 생성해낸 의미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같은 층위 안에서 일어나는 기호 활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 I. 괴로움 > 사랑

사랑은 자아와 세계 사이의 친화이고, 괴로움은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불화이다. 그의 시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외로움은 자아의 세계로부터의 소외, 즉 자아와 세계의 불화를 드러내는 '괴로움'의 기호이다. 그 기호계에 세계와의 친화('사랑')를 거부하고 외로움('괴로움')으로 침잠하려는 경향이 드러난다.

한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무서운 時間」 일부

“손들어 표할 하늘” “내 한몸 둘 하늘”은 자아가 융합해야 할 세계이다. 그것은 사랑이면서 또한 구원의 기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지막 연,

나를 부르지마오

에서 이러한 사랑과 구원은 거부되고, 세계와 단절된 외로움으로 빠져든다. 이러한 외로움은 세계에 속하는 ‘여자’나 ‘시대’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기도 한다.

내 괴로움에는 理由가 없을까,

단 한 女子를 사랑한 일도 없다.

時代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불어」 일부

이러한 이유 없는 괴로움을 시적 화자는 스스로 견디고자 하며, 이는

바람이 자꼬 부는데

내발이 반석우에 섰다.

와 같은 자기 존재의 확인으로 나타난다. ‘바람’은 자아와 불화하

는 세계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자아는 그러한 괴로움을 스스로 견  
뎌내고자 한다.

## Ⅱ. 사랑 > 괴로움

그러나, 윤동주 시의 기호계에는 이와 대립되는 또 다른 경향  
이 있다. 외로운 상황(‘괴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함으로써  
(‘사랑’) 사랑의 기호가 괴로움의 기호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그  
것이다.

——少年은 황홀히 눈을 감어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얼굴——아름다운 順伊의 얼굴은 어린다. ——「少年」 일부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一年 열두달 하냥 내마음에는 눈이 나리리라.

——「눈오는 地圖」 일부

모퉁이마다  
慈愛로운 흰 瓦斯燈에  
불을 허놓고,

손 목을 잡으면  
다들, 어진사람들  
다들, 어진사람들

——「看板없는 거리」 일부

그의 시에서 추억은 시간의 간극을 넘어서 세계와 손잡으려는  
자아의 정신적 지향이다. 그리움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  
러한 그리움이나 추억이 사랑에 대한 지향이기는 하나, 사랑의 완  
성은 아니다. 또 단지 세계로부터 소외되는 외로움뿐 아니라, 세

계와의 격렬한 불화로부터 비롯되는 괴로움은 이러한 그리움이나 추억만으로 해소시킬 수 없다. 때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구원을 찾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건한 자기 희생으로 그러한 괴로움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소리 들려 올게외다.

——「새벽이올때까지」 일부

슬퍼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永遠히 슬플 것이오.

——「八福」 일부

여기서 ‘나팔소리’와 ‘복’은 구원의 기호들이다. 이들은 절대적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시적 화자는 그러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구원은 자기 희생의 제의라는 구체적인 실행의 기약을 통해 얻어지기도 한다.

鐘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든사나이,

幸福한 예수—그리스도에게

처럼

十字架가 許諾된다면

목아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十字架」 일부

이러한 자기 희생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공동체를 더 큰 폭력의 순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랑의 발현으로 보인다. '괴로움'을 극복하고 '사랑'에 이르고자 하는 의미의 경향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추억이나 그리움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종교적 구원에 대한 기대, 결연한 자기 희생의 의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부끄러움 > 떳떳함

'괴로움'과 '사랑'이 자아의 세계에 대한 관계에서 비롯된 외향적 특성의 기호라면, '부끄러움'과 '떳떳함'은 자아의 자아에 대한 관계에서 비롯된 내향적 특성의 기호들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 시의 텍스트 속에서, 자아에 대한 자아의 반성이 빈번히 드러나고, 이는 반성하는 자아와 반성되는 자아라는 두 개의 자아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들 두 자아가 불화를 이룰 때, '부끄러움'이라는 기호로 나타나고, 이들 자아들이 친화를 이룰 때 '떳떳함'이라는 기호로 나타난다. 이들은 각기 상호 작용을 하며 윤동주 시의 기호계를 이룬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엽서집니다.  
도로가 들여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自畫像」 일부

파란 녹이 낀 구리저울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王朝의 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가

——「懺悔錄」 일부

자신의 삶을 마치 우물을 들여다보듯 반성하고, 그로 인해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에 이른다.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은 모두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 혐오가 때에 따라서는 자기 연민이 지배적이다. 가령, 「참회록(懺悔錄)」의 마지막 연,

그러면 어느 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시간의 뒷모양이  
거울속에 나타나온다.

에서는 자기 연민이 지배적이다. 이는 첫 연의 자기 혐오와 대립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 Ⅳ. 땃땃함 > 부끄러움

이와 대립적인 또 하나의 의미 경향, 즉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을 벗어던지고, 자랑스럽고 땃땃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이 있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白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故鄕에 가자.

——「또 다른 故鄕」 일부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외다.

——「별헤는 밤」 일부

「또 다른 고향(故郷)」에서 ‘백골’은 나의 또 다른 자아이다. 그러나 백골은 또한 나의 연민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백골로부터 벗어나야만 ‘또 다른 고향’에 갈 수 있다.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 반성하는 자아와 반성되는 자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또 다른 고향’이며, 따라서 이는 ‘떴떴함’을 나타내는 기호라 할 수 있다.

「별헤는 밤」에서는,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와 같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자랑처럼’ 내 이름자 위에 풀이 무성한 봄을 지향한다. ‘이름’은 나의 또 다른 자아의 기호인데, 흙으로 덮어버림은 나와 또 다른 나의 불화를, 자랑처럼 풀이 무성한 나와 또 다른 나의 화해와 일치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핀 의미의 회로는 같은 의미 층위에서의 대립되는 기호들간의 긍정과 부정, 대립과 통합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윤동주 시 텍스트에서 의미의 궤적은 하나의 의미 층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미 층위와 의미 층위 사이에서도 이러한 의미의 궤적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층위를 넘어서 구현되는 의미 작용을 메타 의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외향적 의미 층위와 내향적 의미 층위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미 작용은 외향적과 내향적을 통합하는 또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층위에서 텍스트는 외향적인 것을 어떻게 내향적

인 것으로 혹은 내향적인 것을 어떻게 외향적인 것으로 통합하는  
 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은 ‘주관’에 의해 매개된 것이다. 여기  
 서 ‘주관’이란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을 넘어서, 외향적인 것  
 을 내향화하고 내향적인 것을 외향화하는 시적 화자의 ‘주관’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관’에 의해 외향적 층위의 기호와 내  
 향적 층위의 기호가 서로 통합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V. 부끄러움 > 사랑

부끄러움은 자아에 대한 자아의 불화이고, 사랑은 자아의 세계  
 에 대한 친화라 했는데, 자아와 세계의 친화에 대한 부정(否定)은 자아  
 와 자아의 불화로 나아간다. 사랑이 갖는 모순을 외부로 돌리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 前날 밤에  
 그 前날 밤에  
 모든것이 마련되었네,

사랑은 뱀과 함께  
 毒은 어린 꽃과 함께

——「太初의 아침」 일부

빨리  
 봄이 오면  
 罪를 짓고  
 눈이  
 밝아  
 이브가 解産하는 수고를 다하면  
 無花果 잎사귀로 부끄런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또 太初의 아침」 일부

이와 같이 남녀간의 사랑은 뱀과 함께 존재하는 모순적인 것으로서 죄를 짓고 눈이 밝아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에 대한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강한 원죄 의식은 이를 극복하여 사랑을 이루려는 또 다른 의미 지향과 대립을 이룬다.

## Ⅶ. 사랑 > 부끄러움

자아와 자아의 불화를 극복하고 자아와 세계의 친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탐색이 그의 시 텍스트에서 드러난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길」 일부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면서, 시적 화자는 탐색을 멈추고자 하지 않는다. 길은 자아가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또 다른 자아와의 불화라는 부끄러움을 안고서 무엇인가를 찾아나섬으로써, 세계와의 친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좌절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의지는 변함없이 드러난다.

## Ⅶ. 땃땃함 > 괴로움

자신을 곧게 세우려는 의지는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세계와의 불화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외부로

부터의 고통을 내면화시켜 나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고 떳떳한 삶을 살코자 하는 의지를 다진다.

하로의 울분을 씻을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 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思想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옵니다.

——「돌아와 보는 밤」 일부

모든 것을 돌려 보낸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黃昏처럼 물드는 내방으로 돌아오면

信念이 깊은 으젓한 羊처럼  
하로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원그림자」 일부

三冬을 참어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봄」 일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 잡은 最初의 握手.

——「쉽게 씌어진 詩」 일부

외부와의 불화로부터 자신을 차단해주는 공간이 ‘방’이며, 따라서 내성을 통해 자아와 또 다른 자아의 화해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울분이나 괴로움에 의해 시적 화자의 사상은 익어가고, 신념이 깊어지며, 나와 화해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 4. 의미 생성과 문화적 맥락

윤동주 시의 텍스트에서 찾아진 두 개의 의미 층위, 즉 내향적 의미 층위와 외향적 의미 층위를 바탕으로 이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미 회로들을 살펴보았다. ‘사랑’과 ‘괴로움’ ‘떴떴함’과 ‘부끄러움’은 ‘외향적’과 ‘내향적’이라는 각각의 의미 층위 안에서 대립과 함께 통합을 이룬다. 그러나 윤동주 시의 기호계 속에서 의미의 산출은 이와 같은 각각의 의미 층위를 넘어서는 데 있다.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을 넘어서는 데서 텍스트의 의미가 찾아지는 것이다. ‘사랑’ : ‘부끄러움,’ ‘괴로움’ : ‘떴떴함’의 양항 대립들은 이러한 층위들 너머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대립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메타 층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층위는 내면의 외면화, 혹은 외면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층위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와 또 다른 자아를 통합하는 ‘나’에 의해 주도되는 층위이다. 그러한 나는 ‘주관’을 가진 나이다. 외부와 내부를 ‘주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나’는 곧 내면과 외면을 통합시키는 주관을 지닌 인간이며, 이러한 인간의 언어는 그 자신만의 언어가 아닌, 그 문화의 언어라는 보편적 속성을 갖는다. 윤동주 시의 기호계를 이루는 것은, 시인의 언어들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화의 언어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의 언어들이 윤동주 시의 기호계 속에서 그 기호계 나름의 방식으로 역동적 기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화의 언어들은 문화 체계의 기반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러한 기반은 윤동주 시 텍스트의 의미 작용에 의해 찾아질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그의 기호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몇 가지 문화적 맥락을 찾아보기로 하자.

‘괴로움’은 외부와의 불화인데, 이는 외부와의 화해를 통해 해

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그의 인식을 통해 외부적인 것들을 내면화할 때, 그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 윤동주가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시인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면, 갖은 억압과 굴종을 강요하는 문화 구조 속에서 그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 굴종은 그러한 억압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자아를 소멸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자아를 소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아를 지키며 이러한 억압을 견디어낼 것인가의 결정을 그 시대의 문화 구조는 강요했다. 윤동주 시의 기호계 속에는 이러한 문화 구조에서부터 비롯된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의 시 텍스트는 자아를 지키는 떳떳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인다.

‘부끄러움’이라는 내면의 갈등을 외부를 향한 ‘사랑’으로 해소시킬 때, 시적 화자가 기독교라는 종교적 맥락 속의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자아와 자아의 불화는 기독교의 원죄 의식과도 같이 근본적인 것이다. 이러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구원의 기다림뿐 아니라, 시적 화자는 자신이 스스로 피 흘림으로써 근원적인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내면의 부끄러움은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 희생에 의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문화 구조인 것이다. 끊임없는 원죄 의식과 이를 벗어나기 위한 자기 희생 및 사랑의 실천 사이에서 시적 화자는 갈등하고 있는데, 그의 기호계 속에서 ‘사랑’은 이러한 ‘부끄러움’을 통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시인 윤동주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문화적 사실과 무관할 수 없다.

내향적 의미 층위와 외향적 의미 층위를 통합하는 ‘주관’의 기호에 식민지 문화와 기독교 문화라는 맥락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았다. 식민지 문화 구조에서 외부적 억압은 나로 하여금 삶의 질곡(‘괴로움’)에 몰아넣는다. 이에 대한 나의 반작용은 더욱 굳건한

나의 의지를 세우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 구조에서 기독교적 신앙은 원죄 의식(‘부끄러움’)을 낳는다. 그러나 이를 자아의 회생을 통한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여기에 식민지 문화 구조는 ‘떳떳함’ 보다는 ‘괴로움’으로의, 기독교적 문화 구조는 ‘부끄러움’ 보다는 ‘사랑’으로의 지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크게 보면, 윤동주 시의 기호계 속에는 역사의 기호와 종교의 기호간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동주 시의 기호계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기호 활동의 역동적 모습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앞서 「서시」의 분석에서 드러난 ‘주관’의 기호가 ‘객관’의 기호와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그의 시 텍스트들 속에서 작용하는가를 살펴보면, 윤동주 시의 기호계의 또 다른 의미가 생성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을 넘나드는 ‘주관’과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을 뚜렷이 구별하여 인식하는 ‘객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주관’과 ‘객관’을 통합하는 층위에 또 하나의 ‘나’를 설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나’는 주관적 의지의 표출과 객관적 묘사를 조절하는 수사학적 기호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참 고 문 헌

-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정음사, 1972.  
 이사라, 「윤동주 시의 기호론적 연구」, 『시의 기호론적 연구』, 서울: 중앙경제사, pp. 24~44, 1987.  
 이승훈, 「윤동주의 「서시」 분석」, 『한국 문학과 구조주의』, 이승훈 엮음, 서울: 문학과비평사, pp. 93~110, 1988.

- Hartshorne, Charles & Weiss, Paul(ed.), *Th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 2,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Jakobson, Roman, *Language in Literature*, Cambridge &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Lotman, Yuri M.,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